

---

---

#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

---

2016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목차〉

곽대훈 국회의원	4
곽상도 국회의원	5
기동민 국회의원	6
김경수 국회의원	7
김경진 국회의원	8
김광수 국회의원	9
김도읍 국회의원	10
김성식 국회의원	13
김성찬 국회의원	15
김순례 국회의원	16
김정재 국회의원	17
김종석 국회의원	18
김진태 국회의원	19
김현권 국회의원	20
김현미 국회의원	21
민홍철 국회의원	22
박경미 국회의원	23
박대출 국회의원	24
박범계 국회의원	25
박찬대 국회의원	26
백재현 국회의원	27
송희경 국회의원	28
신용현 국회의원	29
심재철 국회의원	30
우원식 국회의원	31
위성곤 국회의원	32
유기준 국회의원	33

유민봉 국회의원	34
유은혜 국회의원	35
윤후덕 국회의원	36
이동섭 국회의원	37
이명수 국회의원	38
이인영 국회의원	39
이재정 국회의원	40
이찬열 국회의원	42
이철규 국회의원	43
이철희 국회의원	44
이태규 국회의원	45
이헌승 국회의원	46
이훈 국회의원	47
장정숙 국회의원	49
장제원 국회의원	50
전현희 국회의원	52
전혜숙 국회의원	53
전희경 국회의원	54
정성호 국회의원	56
정인화 국회의원	57
정종섭 국회의원	58
정춘숙 국회의원	59
정태옥 국회의원	60
제윤경 국회의원	61
주광덕 국회의원	63
채이배 국회의원	64
한정애 국회의원	65
홍일표 국회의원	66

곽대훈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소감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곽대훈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곽대훈입니다.

270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해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부감시와 정책감사 등 국정감사의 순기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단체에서 수여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짐했던 국가 봉사를 위한 마음과 초선의 열정이 이번 국감 성과에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자치단체장 10년의 경험을 살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 물가, 생활 경제, 중앙-지방 상생,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기에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우수의원 선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국회의원 곽대훈



곽상도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적은 무의미하다’는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교육부 : 대학구조개혁 미비점을 지적하고 평가기간 단축,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등 가시적 성과 도출 촉구
- ▶문화체육관광부 : 최대 16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불법도박시장 실태를 알리고 범정부차원의 대응 기구 설치 촉구
- ▶문화재청 : 도난·파손된 문화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IOT기술 등 시스템 구축 제안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이 정책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늘 국민의 편에서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동안 수고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뽑고, 시민이 주신 ‘시민의 상’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상식. 이 두 궤가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임하는 제 ‘기준’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정책과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정부가 옳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쳤는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다짐했습니다.

이같은 다짐이 무색하게도, 사상 유래 없는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전체 일정의 절반 가량이 ‘반쪽 국감’으로 진행돼 참 아쉽고 착잡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보라는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부족했지만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과의 끈질긴 질의 끝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주무부처의 확답을 받아냈고, 정부의 허술한 난임시술 지원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진료비 ‘기습 인상’을 감행한 의료기관의 비도덕한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같은 큰 문제부터 가습기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톡스 원료인 독성물질 관리 미흡 등 국민의 실생활을 위협하는 세세한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대안 마련에 힘썼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니만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의료계 원로인 기관장들에게 “고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란 답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부의 과잉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병사 논란’을 잠재우는데 일조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이 선정한 ‘국감스타’로도 뽑혔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우수 국감의원상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선정을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계속 시민들의 옆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김경수 국회의원

## 2016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봐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국회와 인연을 맺은 지 23년째,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치른 국정감사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남다른 기대와 열망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정치 상황들로 국정감사 자체가 F 학점을 받을만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뜻은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잘하라'는 당부와 격려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빈곤, 조선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 전기료 폭탄 등의 민생과제가 산적했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수도권, 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총 8권의 정책자료집과 61건의 보도자료, 국감 질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여러 과제들을 정부에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더불어 대가족·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학교 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가야 할 길도 멍니다. 국감 기간에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처 지적하지 못한 과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법제도를 바꾸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감기간 밤늦도록 수고하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민생과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 12. 28

국회의원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경진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북구갑 출신 국회의원 김경진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해에 이렇게 뜻 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함을 평가해 주시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지엄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의 구현을 위해 힘써주신 NGO 모니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에 처음 발을 들일 때부터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언제나 진실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참여한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부의 부패속에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그로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시선에서 행정부 사업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함은 당연지사인데 이러한 당연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이 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언론공정성 회복과 찍어내기식의 연구소기업의 문제, 정권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집행을 고발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여는 힘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런 상황까지 막지 못했던 부족함에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뜨거운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광주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2016. 12. 28.

국회의원 김 경 진

김광수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커다란 영광을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8년 동안 한결같이 국회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국정감사를 임함에 있어 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생국감,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국감,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실현을 목표로 국정감사가 일회성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가까운 정치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정치, 민생정치, 책임정치의 실현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에 새겼던 저의 신념입니다. 우수 국회의원 선정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여 늘 지공무사(至公無私)의 마음으로 각고면려(刻苦勉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저의 기준이자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비롯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 광 수

김도읍 국회의원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감사에 임했던 선배·동료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그런 저희와 함께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밤늦게 까지 함께 해 주신 NGO 국정감사 모니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저 김도읍은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되어 감사에 임했습니다. 16년 만의 첫 여소야대 첫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국정감사 일정 및 진행상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율을 주도해 갈등이 예견되었던 국정감사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나름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으로 원내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모니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회의나 협상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감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난맥상이나 예산 낭비 사례 점검 뿐 만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 정책 수혜자 및 대상자 입장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속의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직접 뛰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민생침해를 겪고 있는 서해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들과 간담회를 통해 단속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원하지만 해외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통일부 산하기관 기관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성공한 정책성으로 보여주는 숫자 속에 묻혀 있는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정책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생외교’를 핵심 주제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외교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외교부가 통일외교, 경제외교, 에너지외교, 문화외교,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국민들이 외교부에 요청하는 ‘민생외교’ 즉, 민생을 돕는 외교 분야에 힘을 쏟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 중국어선 불법조업, 민생외교 차원에서 적극 대응 촉구, △

국력과 관계된 해외 교과서 오류시정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 당부, △ 글로벌 청년 인재양성사업, 소외계층 축소 등 사업전반 재점검 요청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내실화 요청 및 대안 제시 △ 재외국민 보호제도 내실화 필요 및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촉구 △여권위변조 수사 의뢰만 하고 방치 실태 개선 요구 △외교관 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방인재의 외교관 진출기회 확대 요청 △외교관 재취업 현황 및 개선방안 촉구 △중국 내 대한민국 비자센터 설치 확대 요청 △외교홍보역량 강화 사업 내실화 촉구 △일본 주요대학 한국연구소 활동 강화 필요 제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경우 실제 피해자인 연평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평도 앞바다까지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영상과 사진을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해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심각성을 체감시켰습니다. 단속을 하는 해경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경이 상해를 입는 것보다 중국 어민들을 다치게 해 외교적 마찰이 생기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단속과정의 애로사항과 부처 간 인식차이를 확인해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서와 국내법 집행부서의 협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앞바다 까지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을 매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서해주민들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어민들 심정을 전달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중국어선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외교안보 수석에게 관련 문제를 상기시켰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불법조업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외교부는 중국 측에 해경의 ‘국내법을 위반한 중국 어선에 대해 총기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등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고, 해경은 ‘중국어선의 국내법 위반시 총기사용 매뉴얼’을 제작해 위반한 중국 어선에 물대포 등 총기를 직접 사용해 나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 분석 통한 정책방향 제시 △북한의 핵 전술 마련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북한 핵실험 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속한 수립 당부 △탈북민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요청 △하나원 교육생 건강관리 지원 의료장비 확충 △남한 출생 탈북민 2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요청 △입국 후 1년 경과 탈북민 비보호 결정은 과도한 처사 문제점 제기 △실효성 없는 ‘미래행복통장’ 제도개선 요구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촉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발견된 제도개선사항을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외통위), 국회법(운영위) 개정안을 발의해 후속조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때가 되면 의례히 치르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지적당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서 끝난다면,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조금도 이뤄내지 못한 것과 다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부에게 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며, 대안과 정책마련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NGO모니터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상은 NGO 모니터단의 바른 정치를 위한 격려라고 생각하며, 20대 국회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민생국회·일하는 국회’이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천여 명의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주신 것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해주신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따뜻한 격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하면서, 민생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리자는 절실한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당 차원에서 현안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비록 작금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구조조정·김영란법 시행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게이트) 사태 등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각종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국회의 책무를 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미르·K스포츠재단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긴급경제현안을 우선과제로 선정,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제도'와 같이, 정부는 긍정적인 자평을 쏟아내지만 실제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정부 정책들을 찾아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쏟아내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표류하고 있어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지적하고, 구조개혁·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과 같은 대안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터득한 고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정치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무겁게 받

아들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당, 그리고 제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성원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과 김대인 총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함께 수상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내외귀빈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찬 국회의원

##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 제61조와 법률로 정한 국회 고유의 기능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조선·해운업 위기,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 해양대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상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례 국회의원

“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 하겠습니다! ”

- 수상소감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김순례

20대 국회에 등원 후, 첫 국정감사에서 270여 시민·사회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는 말없는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의료복지·의약품 안전 등 국민의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고, 정부의 자의적 정책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시정요구하며 개선책까지 이끌어냈던 참 보람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의 잘못을 면밀하게 지적하여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의료·복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보건의료정책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구)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항상 지금과 같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개원이래, 첫 번째로 치러지는 국정감사로써 그 어느 때 보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통신비 인하 추진을 비롯해 TV홈쇼핑 허위과대광고 개선과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재정보장, 이동통신사 선택약정할인제도 구조개선 등에 대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일부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었지만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언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 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외에도 아직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과 국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3

국회의원 김정재

김종석 국회의원

‘국감 NGO모니터단’선정 우수국회의원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입니다.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질의내용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경제학계에서 연구와 교수활동을 하던 제가 20대 국회에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시각에서 정부 운영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객관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저는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7월 총리훈령으로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지적했고, 국민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느장 응답을 꼬집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 누구든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SA 제도 전면 개혁을 주문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유권해석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시간 제약과 정보력의 한계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지만 못다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힘쓰시는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김종석

김진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제20대 국회 1년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이를 주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전통과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국회에 등원한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 자문하고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가치 수호'라는 의정활동의 대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키기 위해 늘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고전을 청취하며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일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20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요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 국민과의 약속,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한결같은 관심으로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과 성과를 강조해 오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김진태

김현권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입니다.

먼저,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시고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치룬 국정감사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이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수상하게 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애써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 GMO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문제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물류 위기 등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의 미르재단 개입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한국마사회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특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AI 확산으로 2천만마리에 달하는 가금류 생매장에 피눈물 흘리는 축산농가, 쌀 값 폭락으로 논을 갈아엎은 농민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역할과 책임이 있는 상임위입니다.

저 역시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려와 질책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발판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회의원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8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수여하기에 그 어떤 상보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언제나 그렇듯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준비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개선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지 않은 감사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국회의원 김현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현미

민홍철 국회의원

<수상소감>

민홍철 의원, “중산층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

우선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19대 국회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받는 첫 번째 상이기에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감사 무용론이 때마다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정감사를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인식하는 피감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정부의 정책, 예산,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구입자금 보증,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역차별적 세제 문제,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를 제기해 국토부로부터 개선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등 국토교통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욱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저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신 김해시민께 보답하고, ‘현장이 답이 있다’는 믿음과 우공이산의 자세로 김해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입니다.

먼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 NGO모니터단’에서 저를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부터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문제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집중됐습니다. 저도 교문위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일부라도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돼 성실한 정책 국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다만 헌정사상 유래 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도 국민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를 통해 국민들께서 주신 감사권한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입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갤럭시노트 7’ 발화 사건으로 중구난방 진행된 휴대전화 결함 보상 서비스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연내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통신환경으로 LTE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LTE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해외 데이터로밍 상품을 지적해 LTE와 3G를 통합한 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한 할인 시 발생한 부담을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100%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방사선 관련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와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중인 원전의 조속한 내진설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파행’ 등으로 중간평가 F학점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곱지 않았던 해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제가 세웠던 국정감사 원칙을 곱씹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계속 다듬고 보완해서 내년 2017년 국정감사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걸맞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몸을 더욱 낮추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박 대출

박범계 국회의원

2016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의원(대전 서구을)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하는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로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열의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연루 권력형 비리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재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모토인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질의 및 현안질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는 기관은 검찰·법무부·감사원 등 정의와 공평을 구현하는 사정기관부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헌법체계의 중핵 기관들의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에 앞장섰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법무부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정의 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 노력을 국민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늘 국민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문

20대 국회 개원이후 4개월여가 지나고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18년 전통의 270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국회의원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20여일간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모니터를 해주신 현장 모니터 요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인회계사로 회계업에 20여년간 종사하며 가졌던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를 변화시킬 소망과 담대한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험지 중의 험지라고 평가받던 인천 연수구에서 도전하여 20년 만에 야당의 깃발을 꽂고 하루에도 수 번씩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든든한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정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대한민국 경제개혁과 진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에 대한 결실이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인천 연수구의 시민분들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앞으로도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쉬지 않고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연수구 첫 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늘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백재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도 수고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앞으로 20대 국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일정의 절반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한 상임위원회가 많았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여당의 국정감사 거부, 영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국감 일정을 재조정하여 진행되면서 일정이 축소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오로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준비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소외와 차별을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人權)’,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지방분권(地方分權)’,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통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의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선정된 의제들은 향후 법안 심사와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소관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국정감사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원해주신 광명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해 주신 모니터위원, 평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을 알기에, 이럴 때 일수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GO 우수의원 선정 수상소감문\_송희경 의원>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등원 후 첫 국정감사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인해 국감 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현장에서 쉬지 않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NGO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의 말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가까운 미래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또한 제가 겸하여 속해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에 상임위 배정을 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등원 후 이번 국정감사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파악한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겸임상임위(미방위, 여가위)를 하느라 몸은 고되었지만 보람은 더 컸습니다.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준비과정을 점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하였고, TVWS 상용화·원자력발전 안전체계 및 재난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다크웹을 비롯한 불법복제·불법휴대폰소액결제강·음란인터넷방송 등 포털의 다양한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가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저출산·고령화 예산 편성·운용문제 지적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을 지적, 서비스질 제고를 촉구 하는 등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고 달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라는 자세로 항상 반듯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인불발(堅忍不拔) 하며 국민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국회의원

## 소감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18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 소비자연맹의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받을 수 있어 참으로 기쁜 하루입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과학자로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과학계를 대표하는 만큼,

우리 과학기술인이 늘 희망하고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학벨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 제안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의 국민 신뢰 회복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이번 국감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할부수수료 인하,

국민 휴식 보장을 위한 빨간토요일법 제정,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안보를 위해 구글의 지도 반출을 막아내는 등

미방위원으로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개선사항과 시정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과학기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대변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과학기술인으로서 살아온 제가

과학기술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광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도

깊은 축하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고 다듬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정감사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상을 받았지만, 2016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하던 차여서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던 NGO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2016국정감사는 초반 파행으로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만큼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F학점을 내렸을 때는 5선 의원으로서, 또 국회부의장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6국정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시상에는 앞으로 더욱 잘해 달라는 당부와 질책이 더 큰 의미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 깊이 이 당부를 새기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른 정치를 위해 봉사하시는 NGO모니터단과 평가위원,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져온 NGO모니터단의 공정하고 헌신적인 활동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 NGO의 무궁한 발전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입니다. 우선 저의 국회의원 임기 9년 동안 9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평가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신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하시고 평가해서 주신 상이라 더욱 값진 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인들의 민생살리기였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만들어낸 초거대 복합쇼핑몰, 변종SSM 등은 유통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영세상인들의 터전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유통 재벌들이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고용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악용해 공유지 수의계약 목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복합쇼핑몰을 지으려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또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사실은 협력업체를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현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乙을 위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청년 인턴들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도 지적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공기통을 충전하기 위한 안전충전함 기준이 실제 소방관들의 공기통이 아닌 잠수부들의 공기통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고, 재벌대기업 삼성전자의 경쟁사를 의식한 조급증이 불러온 '갤럭시노트7'연쇄 폭발 사건이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행정기관의 사실상 방조 하에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발화 재연 실험에 실패했음에도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기준을 그대로 인용시켜준 무능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상이 우리사회의 소외받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우리사회의 '을'들 위한 정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서귀포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입니다.

평소 국회가 정쟁의 중심에 서기 보다는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인 국정감사 또한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과 더불어 대안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세로 준비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막 시작한 초선의원 으로서 NGO 모니터단이 선정해 주신 우수의원은 어떤 상 보다도 값지며 의미 있는 상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정감사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수고하여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과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등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참여한 국정감사에서 저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였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사업의 위법성 △마사회의 입장료 위법징수와 정유라 특혜지원 △유령 농업법인과 보조금 문제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항만·저수지 등의 내진설계 미비 등을 집중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던 2016년 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섬겨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7년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국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한해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국회의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대립의 혼란과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사업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쟁으로 인하여 감사 본연의 목적이 여러모로 퇴색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은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자세로 민심을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어려움에 빠진 부산·경남지역 조선 기자재업체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정부에 누진세의 완화 및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세는 더욱 낮게, 목표는 높게 가지면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산 서구·동구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8.

국회의원 유 기 준

유민봉 국회의원

##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민봉입니다.

18년 전통의 역사와 공신력을 가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와 온·오프라인 1천 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심사하여 바른 국정감사가 거듭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회 및 정부 부처 관계자 분들께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있어 그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상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유민봉

유은혜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정활동에 더 힘쓰라는 무거운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고양시(병)  
유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입니다.

2016년 끝자락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공신력과 권위를 가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아주셔서 더 기쁩니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유난히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당발 국감파행으로 야당만의 반쪽국감이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권력형 비리의혹에 민생과 정책이 묻힌 F학점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의혹을 넘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짧은 국정감사 일정에서 국정농단의 의혹과 더불어 교문위에서의 정부가 보여주었던 미흡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차은택의 정책개입과 늘품체조, 송선각 콘텐츠진흥원장 인선에 개입이 된 점을 밝혔고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행추진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점검을 지적하고 우레탄 트랙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끝은 아닙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국정감사를 잘했다.’라는 칭찬이기보다 국민의 대표로써 책무를 다하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께 더 다가가는 국회의원 유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후덕 국회의원

##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윤 후 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주는 상인만큼 더욱 뜻 깊고 기쁜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 안겨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폈던 점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 철도파업, 철도 터널·교량 등의 내진 설계 및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 공항보안시스템 및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LH공사·철도시설공단·도로공사가 발주한 설계·감리 대부분을 퇴직자 소속 업체가 수주한 것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단 오히려 가중시켰던 부동산 및 주택 정책에 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마디로 ‘빛내서 집 사라’며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부동산 정책,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노력 대신 전세임대 및 향후 분양주택 전환되는 물량으로 ‘숫자놀음에 의한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현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전매제한조치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와 지적사항들을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더 좋은 의정활동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18년 역사동안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모니터단을 이끄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현총재님과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모니터단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실시된 첫 번째 국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치루어 졌습니다. 때문에 정책은 실종됐고, 민생은 외면됐습니다.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 가중시켜 드렸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실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원로서 몇 배의 노력,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의 역할을 하고자 이를 악물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실의 위생점검·부실 문제부터 문화재 보호·복원 및 환수 실패, 중국인 관광정책의 문제점, 관치와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행정 지적과 원조한류 태권도의 중흥 방안까지, 상임위 전반을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도 제 작은 노력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분한 상을 수상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 그 후년, 매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탄핵 등 시국이 어수선했던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렇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해로, 매년 지적되듯이 촉박한 국감 일정, 여야의 대립 등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생 밀착형 정책 진단을 통한 ‘정책 국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과 아산지역민들이 계셨기에 제 소신을 펼칠 수 있었고,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국회’, ‘민심국회’로 거듭나서 국회가 명실공히 국회다운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 이명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2016.12.

이인영 국회의원

### 소감문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때로는 질타로, 때로는 격려로 국정감사를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국회의원들의 열심과 노력 또한 인정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단지 행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서 국가를 위해 일 더 잘 하게 만드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책까지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외교통일 부문에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및 대북정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을 바탕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사드배치와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저는 사드배치를 카드로 하여 중국이 북한의 핵 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실제 배치 전에 북핵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는 사드배치를 두고 한중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사드배치와 대북 문제를 별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사드는 외교안보 문제에서 경제문제로까지 불붙었고, 새로운 UN안보리 제재는 중국의 참여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북정책 공조는 커녕 사드 경제보복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 시국에서 국정감사를 자평해보자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지적하고 제안했던 것들에 행정부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한 예입니다. 사드배치, 위안부합의, 개성공단 폐쇄 모두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밀실 속결 정책들입니다. 당사자나 여론수렴 없이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버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음에도 행정부는 여전히 이 잘못된 정책들을 아집으로 고수하고, 심지어 탄핵 직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또다시 여론을 등진 밀실 정책 속결을 반복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정책의 진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행정부가 국정안정화를 입으로 뱉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를,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써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으나 국정운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이 탄핵된 지금 입법부가 더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대정부질의, 입법 등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힘쓰겠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를 때로는 견제하며, 때로는 협력하며 사회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수상소감문

부족함이 아직 많은 초선의원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첫 경험에서 오는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제게 ‘잘 한 일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처음의 각오와 노력을 잊지 말라는 따끔한 주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감시의 시선으로 함께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따끔한 주문에 어긋남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3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예정에 없던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아 평소 깊이 관심을 가져온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의 문제 전반과, 표현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경험한 덕분에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국정 현안을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상초유의 대지진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가 지진재난방재시스템의 문제점, 재난 시 국민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기문란 사건의 예행연습이자 배경으로, 광복70주년 행사 과정에서 전경련과 정부 부처가 시스템을 이루며 움직여 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사실들을 배경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깊이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선실세 국기문란의 공범이라 할 안종범 수석의 혐의를 일부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자유로울 권리, 민주주의. 이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이자, 앞으로 계속될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나갈 목표이며 최선의 가치입니다.

18년의 전통과 노하우, 날카로운 시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오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GO 모니터단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설 수 있고, 행정부 감시를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 자유로울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에서의 활동이 국정감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눈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성찰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가. 건강하고 안전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국회의원

## 국정감사 2016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국회의원 이 찬 열

반갑습니다.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회의원 이찬열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기쁘고 고맙습니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8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끌고 계신 김대인 총재님과 홍금애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평가를 펼쳐 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평가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지탄하고, 또 잘한 일은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초반 일정들을 포함해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모든 국감 일정을 충실히 소화한 모범 상임위로 뽑혔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제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 실책 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측의 수긍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것이 특히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벅찬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입니다. 국정감사가 공격과 방어라는 틀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늘 초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해·삼척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의 종합모니터링 결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로운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이자 제가 국회의원으로 경험한 첫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흔히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3주라는 짧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하고자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의 허점과 느슨한 대비태세를 지적한 점, 軍의 약자인 일반병사들의 처우와 복지문제를 세밀하게 살피고, 사업관리 미비와 국고낭비 실태를 낱낱이 밝힌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는 국가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의 현안들을 차분히 살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철희입니다.

고맙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라는 과분한 타이틀로 격려를 해주셔서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국방 분야에서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간사직까지 맡아야 해서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이 상은 위안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여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나 군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의 생각에 눈높이를 맞춰야 신뢰 받는 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다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작은 실리나 박수보다 이 두 원칙을 견지할 겁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입니다. 평소 무척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우리 군, 그리고 우리 안보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한편으론 열심히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론 도울 건 열심히 돕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안보가 강화되고, 우리 국민이 군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에 앞장서고 밥 값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때에 뜻하지 않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로서는 부담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와 제3당의 출현으로 기대를 모았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감기간 동안 여야대치와 집단퇴장 등 파행을 겪으면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초선의원인 제가 국감 우수의원상을 받을 만큼 제대로 감사활동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 다보스포럼(WEF)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96위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만년 꼴찌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정치인이며 신뢰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사실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번 탄핵국면에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사설정부였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극대화’에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무능,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제게 주신 우수의원상은 단지 국감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라고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광장에서 보여주신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 구체제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밥 값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를 출신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뜻깊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올해는 정책적으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유례없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국가재난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고, 국토 균형발전, 주택 및 교통문제 등과 같은 국민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정책과제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안전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기준미달 시설물의 적시 교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의 보은인사 및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문제”등을 제기하여 혈세낭비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향후 대정부질문, 법률안개정 등 여타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들을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한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국회의원

서민과 약자가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며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이훈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선으로 국민들의 대변자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욕으로 동분서주한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1000여명의 NGO모니터단이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 기쁩니다. 정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수단이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신뢰가 담긴 명예로운 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의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국감, 불성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행정부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해 주신 데에 기쁜 마음입니다. 다만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께서 그 진심을 알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업자원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혈세 낭비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정책에 대한 질타와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은 데에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자평해봅니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로 한전 5조원 추가 폭리를 밝혀냄으로 전기요금 인하의 역할을 했고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 약 1조원 절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원전 만능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꼬집고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견을 대변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위한 중기청의 책무를 강조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 육성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촛불로 보여주신 위대함 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만들 희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뜻에 부합하기위해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담아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강도 높이 질타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 미래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위한 정치로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늘 처음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정숙입니다.

지난 18년 간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회를 질책하고 격려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속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평가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역대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제시보다 기관장에 대한 일회성 호통과, 정파 간 갈등만 부각되었다는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항상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 임하며 기존의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나친 정파적 논쟁보다는 정책 사안에 집중하는 한편, 일방적인 호통보다는 꼼꼼한 자료조사를 통해 정부정책 집행상 허점과 예산낭비 요소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를 추적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안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의 모금과정에 있어 청와대 비선실세와 정부차원의 개입여부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헬기운용체계 전반의 부실을 밝혀내,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로부터 헬기출동관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을 통해 나뉠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쁜 한편, 더 무거워진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임에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 마음속에 아직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국민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과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국회의원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  
국회의원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개혁보수신당, 부산 사상)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 평가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함께 완주하여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들어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입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를 비롯한 각종 경제 위기들로, 대내적으로는 지진과 태풍 피해로 인한 재난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 또한 그 와중에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국민여러분들을 대신한다는 사명감만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깊은 뜻이 담긴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본보기 삼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들을 총괄하며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저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며, 국민 체감이 가능한 실생활중 중심 안정정책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운용 평가와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언론학 전공자로서 저의 전문성을 살려 정부부처로부터 입수한 각종 실정(失政) 자료를 분석하여 현 정부가 운영중인 국가 주요 정책들의 미비한 부분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담배세와 의경 보직 문제 등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미진한 점 집중 지적하여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 방대한 자료와 통계분석을 통해 지진 및 태풍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 등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민 대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막상 정부 차원의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 대책 방안들은 몹시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

로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치르고자 밤낮없이 달려 온 시간들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또한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여워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적반하장의 행태가 공분을 키우고 있음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신 자리인 만큼, 보람되게 일 하고 소중한 가정을 수호하며 청년들은 물론 노인과 아이들,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깊은 뜻을 새겨,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전현희 의원입니다.

20대 총선준비를 시작으로 숨 가쁜 한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을 맞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점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말이지 뼈아픈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니 기쁘면서도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한편으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던 때가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책임감이 들어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6년 국정감사에 임하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민자도로 폐해, 제주신공항 민영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지적하며 “문제개선을 약속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 반드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애썼다는 격려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달라는 격려의 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감사 현장을 지키고 꼼꼼히 평가해주신 현장 모니터 요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보건복지위원회)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님들과 평가위원님들, 그리고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첫해 국정감사로서 많은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된 나라,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철학을 국정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 '국민건강지킴이' 전혜숙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알권리 및 건강권 확대,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사각지대로 몰린 소외계층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언저리를 맴돌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전체 가구 중 80% 가까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평균 3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민간보험 가입을 부치기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식은 부양기피서를 작성하고, 부모는 불효자 증명서나 다름없는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으려 자식을 찾아가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삶을 달리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 설정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부 감시권을 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께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보편복지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전희경의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분들과 사회단체 모니터단의 모니터를 통해 직접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감사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정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한 해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초선 의원으로서 다소 긴장도 되고 걱정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 보좌진들과의 협업과 토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저희 새누리당이 초반에 국정감사에 불참한 것은, 여전히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더욱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안겨드린 실망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맡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 문화체육관광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지적인 토양과 정신문화, 콘텐츠 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문위는 늘 국회에서 이념과 사상을 둘러싼 토론의 장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육이 보다 올바르게 균형 잡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배포되는 각종 교재의 편향성과 왜곡 사례를 지적하는 등 교육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보조교재전수조사가 실시되어 시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막대한 예산권을 활용해 민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습니다. 유소년 운동선수들의 도핑 적발 사례를 공개해, 유

소년들의 잘못된 약물 복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 2017년도를 맞이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해인만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한 명의 정치인이자 시민으로서 저 역시 제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이런 값진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다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 국정감사 우수의원(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국정감사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꼼꼼히 모니터하고 평가하신 후에 주신 상이기에 영광을 배로 받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앞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감시와 격려는 국회의 기능이 제자리를 찾고, 국회의원들이 제일을 하도록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터져 나온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진척이 없던 사법개혁의 단초를 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드러내기 위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70여년 간 변하지 않은 정치 후진성, 사법제도의 후진성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지금이야 말로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엄중하고 역사적 임무를 꿋꿋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되새깁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민의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봐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

국정감사 자평(우수의원상 수상소감)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준 높고 날카로운 질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쟁을 일삼는 질의를 지양하고 '정책국정감사'를 실천, 광양·곡성·구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전력투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쌀값대란에 대해 지적하며 밥쌀용쌀 수입 중단과 시장에 남아있는 쌀을 즉각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올 해 발생한 배추값 대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였고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하였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꿀벌 산업에 대한 위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머니투데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우수의원으로 평가 받았다.

이외에도 저수지의 수질오염과 노후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각종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자료조사와 근거 제시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구 질의의 정석'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및 대안제시와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양·곡성·구례는 물론이고 호남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 개발과 선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겠다.

정종섭 국회의원

## 수상 소감문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후,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비 현황을 점검하며, 내진 설계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또한 의무적으로 내진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재난방송의 수신감도 개선, 공사 중인 동대구역 승강장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회의원 정종섭

정춘숙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자세히 지켜보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시는 이 상의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첫 해를 맞는 제게 큰 격려와 응원으로 느껴집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그런 정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제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지금까지의 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 그 자체입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정진하라는 국민의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저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병원이 실제 건강보험급여 청구에서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을 밝혀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별 암지도를 정리하여 암 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던 화해·치유재단에 대국민사과와 활동중단을 촉구하며,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당시의 현안과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루어 더 폭 넓게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지금,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차별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정의가 강물처럼, 인권이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정태옥 국회의원

## 소감문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심에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첫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실생활에 눈높이를 맞춰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연금 제도의 미비로 가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연금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년 간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이 요금을 먼저 공시하면, 뒤이어서 나머지 6개 항공사가 똑같은 요금을 공시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갈등관리과제 목록 작성 및 관련회의, 회의 자료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않다는 것을 지적했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905개소에 달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한 '16년 예산이 4억 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 재발방지와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생활밀착형 국정감사와 대안제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윤경 국회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제윤경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의원 입니다.  
지난 10여년, 저는 채무자를 사회적 낙오자로 만드는 관행, 제도들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사명감에 가슴 벅차기도 하고 책임감에 두렵기도 한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입성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국정감사를 정말 잘 치러내고 싶었습니다.  
2~3달 전부터, 아니 국회 입성 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며 개원 후부터 꾸준히 자료를 모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몇 년 동안 성실히 상환해도 단 2~3개월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현실,  
원금대비 이자를 200%가까이 내고도 여전히 채무자로 남아 경제생활이 파탄나는 현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의 영업방침을 그대로 따르며 불합리한 구조도 항변할 수 없  
었던 가맹점 점주들의 현실,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도박시설을 지어놓고 국민체육증진이라고 말하는 정  
부의 궤변에 맞서  
분통터지고, 답답하고, 하지만 날카롭고 시원하게 질의하면서  
한 달여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지적만하고 끝나는 일회성 활동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꾸준히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약 2조원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사회는 병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의 편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손쉬운 권리행사는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무한희생은 강요하는  
약탈적이고 가혹한, 채권자들만의 유리하고 편리한 수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들이 소각되는 것을 보면서  
채무자들의 해방감과 자유가 손에 잡히는 듯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 상을 받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신인상은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첫 국정감사에서 받는 NGO모니터단 상이  
초선인 저에게 주어지는 신인상처럼 느껴져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채무자 권리보호라는 저의 국회입성의 초심을 늘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사로 국정감사 내내 같이 고생해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국회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제20대 국회 등원 후 항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미래 대한민국의 참일꾼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 초심 또한 잃지 않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으로서,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일정 연기와 파행으로 순탄치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순실 사태와 故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발부건, 송민순 회고록 등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어느덧 '정책국감', '민생국감'은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당 국회의원임에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밝혔고, 이외에도 총선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지지부진한 판결과 사회적 약자에 허탈감을 주는 황제노역 및 황제접견 문제, 그리고 대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의 '제식구 감싸기' 등 조직내 만연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각 소관기관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총 11권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이를 본 동료 의원 및 언론인 등으로부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쟁국감 속에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실천하고자 했던 노력이 오늘의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더욱 앞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NGO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국회의원 주 광 덕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난 18년 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가 '정부 정책 집행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힘써주신 NGO 모니터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인해 지연되었고, 뒤늦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고질적인 자료 미제출, 핵심 내용 누락,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국정감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서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고, 공정한 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며, 성실한 의정활동 · 투명한 정치실천으로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며 매일 매일이 국정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경제 개혁 ·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경험을 토대로 정무위원회의 주요 현안이 된 대우조선해양 · 한진해운 등 조선 · 해운 산업의 부실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 문제, 박근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경제 정책 실정을 파헤쳤습니다.

또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한진그룹 가족경영의 폐해, 최은영·조양호의 전횡적인 보수·퇴직금 수령 문제,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행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써 진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민심을 더욱 대변하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 수 상 소 감 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시다만 우리 정치현실은 앞날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화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락에 매몰된 소통 없는 정치로는 국민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변화에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의 모습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들에 대한 칭찬이라 여기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홍일표 국회의원

<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일표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과 그 동안의 국정감사기간동안 함께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남짓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시간적 한계 속에서 국정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뤄야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가 미흡할 수 있고, 자칫 정치적 이유로 정쟁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혼란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제적 현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탈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경제부총리 리더십 확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정감사에 임하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저를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정치상황에서도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